

강진군,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활력 농촌 변신

신규마을 조성 1000세대·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독신자 및 여성 위한 단지도...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강진군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 마을 조성 및 빈집 정비에 나섰다.

군은 민선8기 신(新)강진시대의 핵심 목표인 강진 인구 5만 명 시대 달성을 위해 신규마을을 조성 1,000세대,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등 총 2,000세대의 전원주택을 조성해 도시민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적정 위치 및 빈집 리모델링 조사, 전원주택 조성 대상지 타당성 검토, 지역 정착 촉진을 위한 강진군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 용역 결과 수립 후, 신규마을 대상지를 선정하는 한편, 관내 빈집을 전수 조사한 후 리모델링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비용을 지원해, 건물 소유자와 장기 임대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마을 조성 중 일부는 올해 8월부터 군동 금곡마을 인근의 20세대를 '독신자 및 여성'을 위한 단지로 조성하며, 이 중 10세대는 은퇴한

여성 목회자를 위한 주택으로 100% 임주가 예정되어 있다. 주 거주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로등, CCTV 설치 등 범죄로부터 특별히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 마을은 한 마을에 50~100세대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이는 당초 10~15세대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이다. 군에서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지원한다.

현재 신전면 수양, 도암면 지서, 작전면 학동, 군동면 문화마을 인근에 신규 마을 4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강진읍 목리에 10세대, 군동면 금곡마을 인근 10세대, 대구면 남호마을 인근 15세대 등 총 40여 세대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에서는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푸소 체험 및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 강진군의 대표 생활 관광 상품의 운영 능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득 창출을 도와,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은퇴자 등이 강진의 '새 식구'로 정착할 수 있게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빈집의 상태에 따라 공사비용을 지



원하고 건물 소유주와 7년~1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추진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 완료한 주택이나 조립식 주택을 농촌 유학생과 가족 등 이주 희망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안정적인 교육 수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작전면의 구상마을, 죽산마을, 하평마을의 빈집 3채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통해 3가구 7명이 다음 달에 입주할 계획이다. 이 중 초등학교 4명은 작전초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그동안 군에서는 농어촌개발추진단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사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빈집 1개소당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직접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크레오파트라의 귀족 과일' 무화과 수확

해남군 특화작목인 시설 무화과가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

관내 50여농가, 23ha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해남 무화과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해 노지재배에 비해 수확시기가 1개월 이상 빠르다.

특히 해남에서 생산되는 시설 무화과는 최신 하우스 시설에서 상자를 이용한 수경재배로 생산되기 때문에 껍질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높은 당도와 치밀한 조직으로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무화과연구회 전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땅끝무화과주식회사를 설립, 공동작업을 통해 당도와 무게 등 규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출하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해남 시설무화과는 7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생산되며, 연간 385톤을 생산, 22여여민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수확된 무화과는 농가 직거래 및 해남미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생과뿐 아니라 잼, 말랭이, 식초, 즙으로도 가공해 판매한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어'여왕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는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 항암효과가 주목받고 있으며, 풍부한 섬유질과 단백질 분해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불량과 노화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여름철 최고 휴양지 완도군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무료

완도군은 7월 31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은 요트, 패들 보드, 카약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현장에서 진행하며, 군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전 기상 확인, 출발 상황 발생 시 대처 등 안전교육 실시, 인명 구조 요원 상시 대기, 경찰차·소방서 등과 긴급 구조 체제 구축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용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주말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니 여름철 최고 휴양지인 청정바다 완도를 찾아 해양레저 스포츠를 무료로 즐기고 힐링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시원함이 쏟아진다" 장흥 물축제 30일 개막 8월 7일까지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지상 최대 물싸움 등 주목



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힐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7월 30일 막을 올린다. 이번 물축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장흥읍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를 주

무대로 펼쳐진다.

장흥군은 3년만에 개최되는 지역 대표 축제인 만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축제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확대

하면서 2번의 주말을 끼고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 또한 크다.

올해 물축제는 '장흥,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란 주제로 진행된다. 장흥군은 모든 프로그램에 물이 가진 문화·생명·놀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도록 계획했다.

물축제의 백미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와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다.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한 데 어울려 물싸움을 벌이며 거리를 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 첫날인 30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퍼레이드는 공예태후 호위행렬을 재현한 역사 테마 프로그램으로 연출됐다. 퍼레이드 곳곳에서는 호위행렬을 가로막는 '무신들의 함성'을 물총으로 터트리고, 동시에 행렬 앞에서는 무신과 싸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지상최대 물싸움장에서는 매일 오후 2시 신나고 흥이 넘치는 물싸움이 펼쳐진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은 지상 최대의 워터 볼 물풍선, 물폭탄 싸움으로 색다른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 청년센터, '희망청춘 아카데미' 오늘 개강

진도군이 청년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희망청춘 아카데미'를 오는 7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희망청춘 아카데미는 진도군 거주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청년생활 즐기기'라는 주제로 목공예(우드카빙)와 힐링화실, 플라워클래스 등 다양한 취미 소양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주 1회씩 총 20주간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년 문화 활동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진도군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하반기 청년창업스쿨, 청년동아리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설계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진도군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 창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진도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